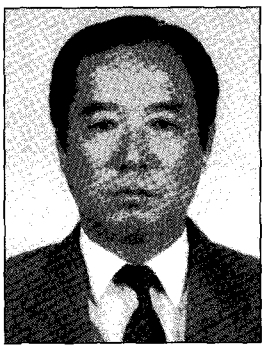
제관업계의 든든한 버팀목

노력과 신뢰 바탕

연혁

1968년 04월 07일 보화제관공업사 설립
1973년 11월 26일 일동제관공업(주)로 법인체 설립
1982년 08월 10일 5G/A(18ℓ)라인 전자동화 및 식관(통조림)라인 신설
1982년 08월 11일 중소기업 근대화 계획 승인 제519호(중소기업진흥공단)
1984년 11월 01일 유망중소기업 선정 제9377호 (상공부 산하 KIET)
1985년 04월 01일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가입
1986년 07월 26일 본사 및 공장 경기 성남으로 이전
1987년 12월 01일 일본 및 대만으로부터 식관 고속 자동 생산라인 수입 설치
1991년 07월 06일 사무자동화계획에 따른 전산시스템 도입
1992년 05월 14일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 수상 제990호
1993년 02월 02일 한국공업규격표시(K.S.) 획득
1995년 12월 07일 환경부장관 표창(폐기물 재활용)
1996년 11월 28일 음성공장 토지 구입
1998년 06월 20일 허남수 현 대표이사 취임



◀ 허남수 일동제관공업(주) 대표이사

인류의 식생활이 발전하면서 이와 더불어 발전해온 금속 캔은 끊임없는 시대 변화와 환경에 따른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 왔다.

금속 캔은 고도의 밀봉성, 차단성(Barrier) 및 내열성으로 장기보존에 가장 적합하고, 견고하며, 수송으로부터 보관,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포장용기로써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전 세계의 금속 캔 소비가 정체되거나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경기 침체로 소득감소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것과 대체 용기인 PET병이 캔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유에서 일 것이다.

이에 금속 캔 업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생활 스타일의 변화와 물류, 유통구조의 변화, 소비계층별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춰 투자와 저 마진의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정책방향을 조화 있게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힘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과 튼튼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제관업체가 있다.

일동제관공업(주)는 35년이라는 긴 전통만큼이나 많은 노하우로 제관업계의 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다.

1968년 보화제관공업사로 설립, 1973년 일동제관공업(주) 법인체로 변환, 1998년 현 허남수 대표이사의 취임과 함께 제관업계에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재도약의 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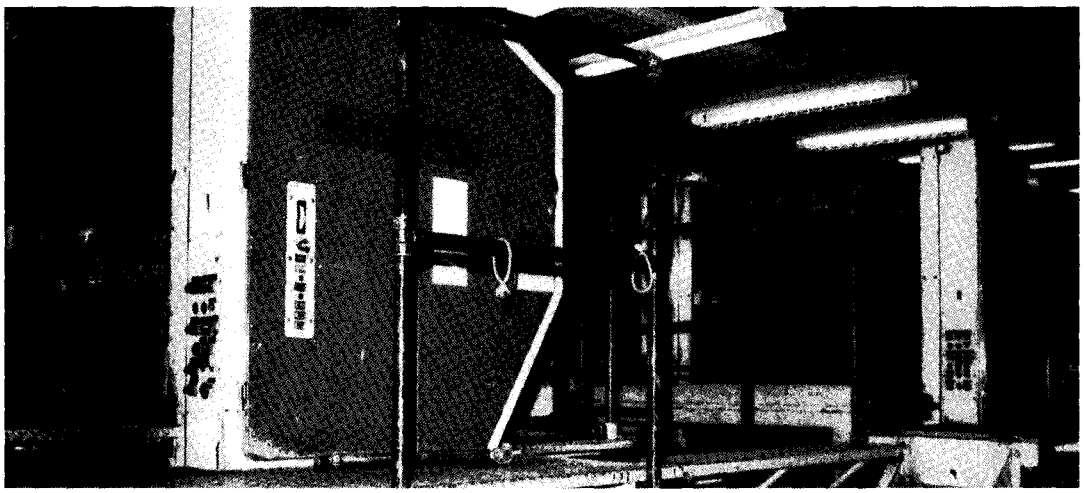
일동제관공업(주) 허남수 사장은 "현재 국내 제관은 취약해진 채산성과 재무구조 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제관산업 자체에 대한 사업의욕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동제관공업(주)에서는 무리한 가격인하 보다는 원가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동제관공업(주)는 1984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1992년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 수상, 1993년 한국공업규격표시(K.S) 획득과 1995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일동제관공업(주)의 허남수 사장은 "총체적인

▲ 일동제관공업(주) 생산가공제품



▲ 일동제관공업(주) 캔 인쇄기계

영업력 강화로 매출 증대와 생산성 및 기술력의 혁신적인 향상, 철저한 품질관리의 혁신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임직원의 수가 약 100명 여명으로,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가 물신 풍기는 일동제관공업(주)는 현재 인쇄기 4라인, 사이드 용접기 6라인, 앤드 7라인, 시마기 6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납품처는 오뚜기, 대상, 동원, 롯데삼강, 화남, 현대페인트, DPI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에 케찹관, 과일관, 페인트관, 신나관, 식용유관, 골뱅이, 참치관 등이 있다. 이 중 80%가 식품용 금속 캔이라고 한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건강문제와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일동제관공업(주)의 임직원들은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자들의 기호를 찾아갈 생각입니다"라며 자신했다.

일동제관공업(주)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능동적인 자세로 항상 최고의 품질은 물론 소비자의 관심과 환경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직원들은 회사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는 이념을 갖고, 회사측에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진정한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남수 사장은 "현재 국내 제관업체들은 대내외적으로 점차적인 원가인상 및 단가인하 요구에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인상 및 단가인하는 제관업체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관업체들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 부문에 걸쳐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대기업의 제관업 신규

〔표〕 일동제관공업(주) 생산품목현황

구분	호칭	안지름(mm)	높이(mm)	내용적(cc)	종류	비고(한국명칭)
원형	211-1	65.4	39.2	108.9	돌림띠 상하2중 권체관	참치3호관
	211-2	65.4	52.7	152.5		8호관
	211-3	65.4	69.7	210.7		버섯2호관
	211-4	65.4	81.3	249.3		과실7호관
	211-5	65.4	101.1	318.1		7호관
	211-6	65.4	122.1	384.3		쥬스7호관
	301-1	74.1	34.4	120.3		평3호관
	301-2	74.1	39.2	138.6		게3호관
	301-3	74.1	50.5	187.5		휴대관
	301-4	74.1	59.0	223.2		6호관
	301-5	74.1	81.3	318.7		5호관
	301-6	74.1	95.3	379.3		버섯3호관
	301-7	74.1	113.0	454.4		4호관
	301-8	74.1	79.6	308.0		연유관
	307-1	83.5	45.5	208.9		참치2호관
	307-2	83.5	51.1	240.5		평2호관
	307-3	83.5	55.9	265.2		게2호관
	307-4	83.5	113.0	572.7		3호관
	307-5	83.5	142.3	733.5		버섯3호관
	401-1	99.1	59.0	396.6		참치1호관
	401-2	99.1	68.5	468.2		평1호관
	401-3	99.1	71.7	493.7		게1호관
	401-4	99.1	120.9	396.6		2호관
	404-3	105.3	176.8	1462.0		3호실린더관
	603-1	153.5	169.4	2974.6		1호관
	603-2	153.5	176.8	3090.5		특1호관
	603-3	153.5	113.3	1961.0		참치2kg관
	400-0	98.6	117.8	818.7		분유1호관
	401-5	99.1	112.3	793.0		분유3호관
	401-6	99.1	118.03	845.0		분유4호관
	404-1	105.3	97.8	788.5		분유2호관
	402-2	105.3	118.05	945.0		분유5호관

진출은 제관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포장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고객과 제관업체들의 상생관계를 돈독히 하여 서로 발전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피력했다.

식품 및 페인트용 금속 포장 용기 생산 KS 인증업체인 일동제관공업(주)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모습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튼튼한 경쟁력을 갖추어 어려움을 딛고 발돋움을 하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ko

권해진 기자